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평양 12월 25일】 조선중앙통신11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4일과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강습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회의 기본정신을 깊이 체득하며 당시 보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확실한방도를 통해 회의에 참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꾸고들어야 합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모든 당세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전심으로 반드시 충성의 세포로 만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한 편이 고장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와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밟고나가 당세포를 오늘의 건설동지사로 만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시시켜나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밝힐 어머니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겸사옹위하는 것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워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선화적인 분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생생으로 물어쥐고 무조건 철저히 펼쳐하기 위한 두 방향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불리임에 자기 단위에 깃든 당의 영도업적을 빛내여나갈에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동안 일찍이 용보로 하여 언급하였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을 당의 방침을

결사貫彻하며 당세포안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안이 꽂 들어차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고전적 보작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위대성교양을 기분으로 하는 5대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문제를 확실히 회의에 참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꾸고들어야 합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모든 당세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전심으로 반드시 충성의 세포로 만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한 편이 고장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와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밟고나가 당세포를 오늘의 건설동지사로 만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시시켜나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세포들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꾸고들어야 합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모든 당세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전심으로 반드시 충성의 세포로 만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세포는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한 편이 고장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와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밟고나가 당세포를 오늘의 건설동지사로 만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실시시켜나갈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동안 일찍이 용보로 하여 언급하였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드는것을 당의 방침을

판단을 적극 마련해워 당조직의 커종합을 깊이 새겨 암기 하며 학습을 비롯한 땅사상 생활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요구성을 높일 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우리 당의 핵심, 초급 정치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인고 당원들을 교양하기 위한 숨은 방법론을 연구하여 구현하여 당의 사상과 정체를 훈련하여 투자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함에 대하여 말하였다.

출연자들은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련의 전위대으로서의 역할을 험용히 수행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세포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출연자들은 군종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 력한 군종이 우리 당과 협연의 정으로 군

판점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며 과학자, 기술자, 기능동반파의 사업에 힘을 넣고 대중 대중의 일심단결을 뿐만 아니라 당과 군은 당세포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송고한 인민우편 지니고 사람들에게 어머니다운 삶정으로 떠나고 대하고 보살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집단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터뜨려온 모든 사람들은 다 혁신자, 영웅적위로의 창조가 되도록 하며 따라로서, 따라해우기, 경험교환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행렬히 벌이고 서로 돋고 이끄는 집단주의적이다 꿈을 높이 앞당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이어지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 있는 데 종족 차별이며 당시 불평의 사업에 힘을 넣고 대중 대중의 일심단결을 뿐만 아니라 당과 군은 당세포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송고한 인민우편 지니고 사람들에게 어머니다운 삶정으로 떠나고 대하고 보살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언제나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활상고충을 제때에 물어주는것과 함께 뜨거운 인간성과 인정미를 지니고 모든 사람들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끌어들여 대하여 말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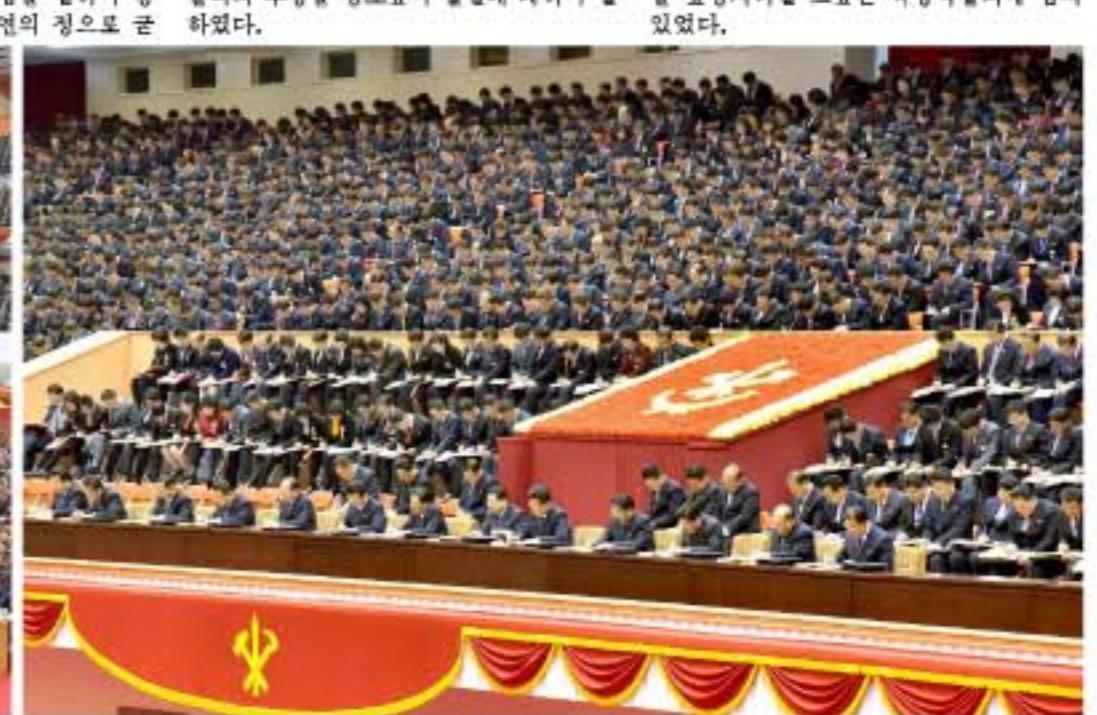
출연자들은 당세포위원장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당세포의 전 우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으로써 우리 당과 김정일·김정은주의방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정관련을 위한 두정에서 혁명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당에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는데서 당시 보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전체 강습참가자들은 모든 당세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평도를 생활에 반복하여 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당의 조선파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래를 고수하는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에 저지워져있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군들과 당원들이 당정책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당직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실천 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는 누가 되여야 하는가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인쇄회로기판시험공장 당세포에서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인쇄회로기판시험공장 당세포

